

## 신동 피아니스트-신예지휘자의 만남

러시아 국립 오케스트라 부지휘자로 활약중인 박태영과 한국계 독일인인 15세의 피아노영재 카롤리네 피셔가 한 무대에서 만난다. 22일 오후 7시반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서울바로크합주단 정기연주회. 피셔는 멘델스존의 피아노협주곡 a단조(한국초연)를 협연하고 바흐의 관현악모음곡 3번과 쇼스타코비치 '실내교향곡' 작품110a도 연주한다.

피셔는 지난해 9월 독일 로만 헤어초크 대통령의 국빈방한 때 신라호텔에서 특별연주회를 가져 '신동'으로 주목받았던 피아니스트. 94년 베를린 슈타인웨이 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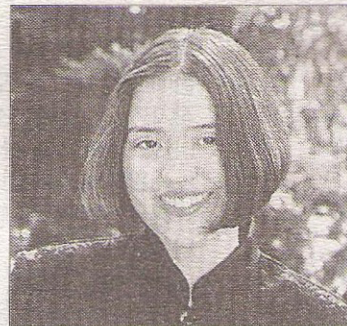
박태영은 러시아 국립오케스트라의 부지휘자로 모스크바 음악계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는 신예지휘자. 63년 일본 도쿄에서 출생한 재일교포로 도쿄음대 졸업 후 모스크바로 유학해 차이코프



지휘자 박태영

스키 음악원을 졸업했으며 97년 국립오케스트라 부지휘자로 임명됐다.

이날 바이올리니스트 이재민과 콘트라베이스 주자 채현석은 보



피아노 피셔

테시나의 '바이올린과 콘트라베이스를 위한 그랜드 듀오 콘체르탄테'를 협연한다. 02-396-5994 (서울바로크합주단) <유윤종기자>

[gustav@donga.com](mailto:gustav@donga.com)



Korea Herald

**KOREAN-GERMAN PIANIST'S CONCERT** — Korean-German pianist Caroline Fischer (fourth from left), who performed at the Seoul Arts Center Monday, poses for the camera with her mother (right) and guests: Amb. Stephen D.R. Brown of Britain (from left), Rep. Yang Sung-chul of the ruling National Congress for New Politics (NCNP), Amb. Claus Vollers of Germany, and Rep. Park Chung-soo of the NCNP.